

#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싫-' 구문의 사적 변화 일고찰

- 발신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신성철(국민대)

## 〈목 차〉

- |                       |                    |
|-----------------------|--------------------|
| 1. 서론                 | 4. '싫-' 구문의 통사적 변화 |
| 2.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사회적 요인 | 5. 결론              |
| 3. '싫-' 구문의 형태적 변화    |                    |

## 1. 서론

이 글은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싫-' 구문의 형태·통사적 변화 과정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8-A00063).

- 1)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언간(諺簡)'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동일한 의미된다. 황문환(2015: 34-51)에는 조선시대에 한글로 씌인 편지를 가르키는 다양한 한자 표기 명칭과 한글 표기 명칭에 대해 살펴보고, '언간' 명칭이 가지는 상대적 이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되어 있다. 황문환(2015: 50)의 상대적 이점 부분만 살펴보면, 첫째, 한글이 조선시대 내내 언문으로 불려, '언문'의 지위와 직결되는 자연스러운 명명이며, 둘째,

살펴보면서, '싫-'의 역사적 변화에 관여되는 발신자의 성격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오늘날의 편지가 그러하듯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 소식, 용무 등을 한글로 적어 보낸 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는 '발신인, 수신인, 양자 사이의 용건'이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이 적용된다(김일근 1986/1991: 11).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황문환 외 2013)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자료적 특징이 반영되어 각 한글 편지의 출전 표시에 '편지 약칭, 작성 시기, 발신자(관계), 수신자(관계)'가 제시되어 있으며 발수신자의 관계 등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sup>2)</sup> 이를 바탕으로 발신자의 계층과 지역은 물론, 성별, 연령, 세대 등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드러나는 '다양성'이 확인된다.<sup>3)</sup> 그리고 황문환 외(근간)에서는 황문환 외(2013)의 판독 자료에 실린 모든 어휘가 황문환 외(2013)의 출전 표시와 함께 수록되어 자료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sup>4)</sup>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는 항상 동일하지 않은데, 계층, 세대, 연령, 지역, 성별 등에 의한 변이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대

한글이 '언문'으로 불린 시기상의 상하함과 겹치기 때문에 '언간'만으로도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자연스레 가리킬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며,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언간'을 함께 사용한다.

- 2)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는 황문환(2013: 42-44)과 황문환 외(2013: 11)를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지 약칭, 작성 시기, 발신자(관계), 수신자(관계)'의 순서로 제시된 '〈순천김씨묘-001, 1550~1592, 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의 경우라면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중에서 001 번호가 부여된 편지, 편지의 작성 또는 발신 연도, 발신자의 이름, (괄호 안은) 수신자와의 관계, 수신자 이름, (괄호 안은) 발신자와의 관계'가 제시된다. 간단히 세 자리 숫자가 넘는 건수(〈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은 188건임), 16세기 후기,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라는 서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3) 지금까지 공개된 조선시대 한글 편지가 발수신자 관계 등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본고의 연구는 황문환 외(2013)에 실린 자료처럼 가능한 한 발수신자와 작성 시기 등의 서지 사항이 확실한 언간이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 4)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간 자료'는 황문환 외(근간)의 집필 원고를 이용한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이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집필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황문환 외(근간)의 개략 설명은 황문환(2013: 48-49)을 참조할 수 있다.

국어에서는 이러한 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가 널리 수행되었지만, 국어사 연구에서는 국어사 자료에서 사회적 요인을 설정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거의 시도되지 않아 최근까지도 국어사 자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그리 많지 못하다.<sup>5)</sup> 그러나 가문에서 보관한, 또는 가문과 관련 있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연기(年紀)를 적은 것이 적지 않으며, 적히지 않은 것이라도 족보 등의 자료와 비교하면 작성자와 작성 시기(연령 또는 세대 등), 성별 등이 특정된다. 그러므로 국어사 자료 연구에서 도입되기 어려운, 사회적 요인인 성별, 연령, 세대 등을 적용해 보고, 역동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언어 변이와 변화의 단면 하나를 '싫-' 구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싫-' 구문은 그 형태와 통사 구조에 있어서 국어사적 변화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간본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와 통합 형식의 용례가 언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 2.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사회적 요인

조선시대 한글 편지<sup>6)</sup>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휘와 통사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국어사 연구에서 인간의 본격적인 활용은 충북대학교박물관(1981)에서 <순천 김씨묘 출토 간찰>이 원본 사진과 함께 공개된 이후에 시작되었다. 판본 자료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어휘와 종결형은 국어사 연구자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1989년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이 발굴되면서 간본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국어사 연구의 중요 대상이 되었다(황문환 2004: 77-78).

5) 홍윤표(1994: 74-76)에서 문헌 자료의 간행에 참여한 화자나 필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하면서 국어사 자료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계층을 언급하였으나,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계층에 따른 음운 변화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논의는 김주필(2005, 2006, 2008, 2013)을 참조할 수 있다.

6)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현황과 목록은 황문환(2010), 황문환 외(2013)와 이래호(2015)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언간에 적용된 연구 방법은 기존의 판본 자료를 연구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다. 언어 변화라는 일정한 경향 속에서 언간에 대한 각 시기의 언어의 특질을 밝힌 것으로, 간본 자료의 역사적 확실성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단선적이고 동질적인 언어 상태의 가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한 가문에서 발견된 것일지라도 발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어사 연구에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홍윤표(1994, 1997), 최전승(1987, 2009) 등에서 사회적 성격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홍윤표(1994: 74-76)에서는 문헌의 간행에 참여한 화자나 필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고, 홍윤표(1997)에 이어서 문헌의 번역 양상에 따른 그 특징이 설명되었다. 최전승(1987: 341, 2009: 330)에서는 19세기 후기의 전라 방언과 중앙어(또는 중부방언)이 보이는 여러 종류의 과도 교정을 각 방언의 위신 또는 권위에 기인한 과도한 사회적 교정으로 설명하였다.<sup>7)</sup> 그러나 사회적 요인에 의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논의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변인을 도입한 것은 김주필(2005, 2006, 2008, 2013 등)이며, 음운 변화의 점진적 확산에 필(언해)자의 사회적 성격을 변인으로 적용하여, 계층에 따라 음운 변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언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김주필(2011가)부터 나타난다. 김주필(2011가)에서는 한글 편지에 반영된 구어적 특징이 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계층에 따른 실제 언어생활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언간에 대한 역사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김주필(2011나), 최전승(2012: 320-341), 신성철(2014), 김한별(2015가, 2015나) 등에서 이루어진다. 김주필(2011나: 89-90)에서는 17·8세기의 『선세언독』과 송준길 후손가 언간을 대상으로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세대, 성, 수신자와 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이 변인으로 관여함을 살펴보았다. 신성철(2014: 131-132)에서는 19세기 한글 편지에

7) 강희숙(2010: 289)에서는 17세기 후반의 언간 자료에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중앙어가 지니는 사회언어학적 가치 또는 외재적 권위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

나타난 표기와 음운 변화 중에서 이질적인 경향은 타성바지가 작성한 편지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여 언간 자료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김한별(2015가: 233-234, 2015나: 78-80)에서는 언간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국어 음운사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변항, 즉 발신자의 '연령', '세대', '계층', '성별', '수신자의 관계', '출신지' 등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통한 국어학적 연구는 먼저, 인간의 국어사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논의에서 출발하며, 음운사적 연구, 어휘적 연구, 문법적 연구 등으로 세분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간에 사회적 변인이 비교적 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개별 언간의 어휘 정리나 분포 양상을 보이거나 희귀어 또는 난해어를 소개하였고,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음운, 어휘, 문법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sup>8)</sup> 또한 음운이나 어휘적 측면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이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휘나 통사적 변이와 변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측면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못하다. '싫-' 구문의 역사 변화에 나타난 어휘와 통사적 변이와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은, 조선시대 한글 편지가 사회언어학적 접근에 비교적 용이한 국어사 자료임에 불구하고 어휘, 통사 층위에서는 아직까지 그 접근이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어휘와 통사 변화에 적용되는 사회적 변인을 발신자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시험적 성격을 지닌다

8) 강희숙(2010) 등에서 음운 변화, 배영환(2011), 박부자(2014) 등에서 어휘를 연구하였다. 언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이레호(2015: 88-90)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음운 변화에 대해서는 김한별(2015가: 197-198)을 참조할 수 있다.

&lt;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명칭과 약칭 비교&gt;9)

명칭	약칭	명칭	약칭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순천김씨묘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현 풍 광씨 언간	진주하씨 묘/광씨
나주임씨가 『총암공수목 내간』 언간	총암공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	송준길가
은진송씨가 송준길가 『선 세언독』 언간	선세언독	해주오씨 오태주가 『어필』 소재 명안공주 관련 언간	명안어필
『숙휘신한첩』 언간	숙휘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이동표가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 묵보국자내간』 언간	창계	『숙명신한첩』 언간	숙명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	선찰	고령박씨가 『선세언적』 언간	선세언적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 재 언간	자손보전	추사가 언간	추사가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 『순원왕후어필』 언간	김성일가 순원어필	추사 언간 조용선 편저 『봉서』 소재 언간	추사 봉서
순원왕후어필봉서 언간	순원봉서	은진송씨 송병필가 언간	송병필가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 후 언간	명성황후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 후 궁녀 언간	명성궁녀
순명효황후 언간	순명효황후		

### 3. ‘싶-’ 구문의 형태적 변화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싶-’의 어원 정보에 ‘식브->십브-’가 주어진다. ‘식브-’가 ‘십브-’로 바뀌어 ‘싶-’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양진(2006: 141)에서는 ‘식브->십브-/십브->시브->시프-’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았다. 손세모들(1996: 391)에서는 ‘식브-’와 ‘십브-’가 혼용되고, ‘십브-’ 형태가 나타난 것은 그 형태가 엄격하게 고정되지 않았으며, ‘십브-’는 ‘식브-’가 ‘십-’로 바뀐 증거라 하였다.<sup>10)</sup> 조항범(1998: 186)에서는 ‘시브-’는 근대국어 이후에 나타나는데,

9) 이 글에서는 정식 명칭보다 약칭을 주로 사용한다.

16세기에는 ‘십브-, 신브-’가 17세기에는 ‘시프-, 시브-’ 등이 우세하다고 하면서 ‘십브-’는 어말 자음 ‘ㄱ’이 ‘ㅂ’으로 교체된 것이며, ‘시브-’는 ‘십브-’에서 동음 ‘ㅂ’이 탈락된 것이거나 ‘식브-’에서 ‘ㄱ’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신브-’와 ‘시프-’는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시프-’는 ‘-프-’를 가지는 다른 형용사에 유추된 어형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항범(1998: 559)에서 ‘식브-’와 ‘시브-’를 쌍형 어간으로 간주하여 동시대에 혼용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안주호(2005: 77)에서는 세기별 빈도수를 제시하며 15,6세기에는 ‘식브-’형이, 17세기부터는 ‘시브-’형이 단연 우세하다고 하였고, 15세기의 ‘식브-’형에 소급된다는 조항범(1998: 186)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시프-’도 또한 조항범(1998: 186)의 주장을 따르면서 ‘식브-’에서 출발하여 ‘시브->시프->싫-’으로 변화되고 현대국어 ‘싫-’의 직접적 소급형은 ‘시브-’라 하였다.

정윤자(2014: 32-33)에서는 ‘식브-’에서 ‘ㄱ’이 탈락하여 ‘시브-’가 되었다면 서, 첫째, 15세기에 ‘식브-’, 16세부터 ‘시브-’가 나타나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며, 둘째, 15,6세기에 각각 간행된 『삼강행실도』에 동일한 부분에 시기에 따른 표기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식브->시브-’가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윤자(2014: 34-35)에서는 ‘시프-’가 ‘저프-, 슬프-, 아프-, 고프-’ 등의 ‘-프-’에 유추되어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았다.<sup>11)</sup>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식브->시브-’는 ‘ㄱ’의 탈락으로 형성된 것인가?

둘째, 그 과정에 나타나는 ‘신브-/십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무엇인가?<sup>12)</sup>

10) 그러나 이 논의는 희망을 의미하는 ‘-고져 식브-’가 ‘-고져 십브-’, ‘-고 싫-’의 변이 과정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주장한 것이므로, 당시의 모든 ‘싫-’ 용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11) 문화체육관광부(2009)에 실린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프로그램>의 ‘국어 어휘의 역사’에도 ‘싫-’의 역사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12) ‘십브-’는 『번역소학』(1518) 외에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에서도 ‘십브-’가 나타난다. 예) 먹고져 {십브디}<東國 열,6b>. 그런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용언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등에서 소위 중절 표기가 다소 나타나는 문헌이다.

셋째, ‘시프-’, ‘십(십-)’의 형성 과정은 어떤 것인가?

### 3.1 ‘식브-’와 ‘시브-’의 분포와 형성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십-’의 어휘 형태를 제시하면 ‘식브-, 시브-, 시브-, 시프-, 시부-, 십-, 십부-, 십푸-’의 8개 형태이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나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어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식브-’는 16.7세기의 언간 일부인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이동표가 언간>에서 보인다. <순천김씨묘>와 <진주하씨묘>는 각각 16세기 중후기, 17세기 전기의 언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식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동표가>는 17세기 중후기에 작성된 것이어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식브-’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sup>13)</sup> 그리고 <순천김씨묘>와 <진주하씨묘>에 나타난 ‘식브-’와 ‘시브-’의 분포 양상을 분석해 보면, ‘식브-’/‘시브-’의 역사적 변화에 ‘세대’라는 사회적 변인이 적용된 정황이 나타난다.

#### (1) ‘식브-’의 분포

<순천김씨묘> 신 천 강 씨	{식버}<순천김씨묘-090>의 2회, {식베라}<순천김씨묘-031>의 8회, {식브거든}<순천김씨묘-139>, {식브고}<순천김씨묘-034>의 3회, {식브니}<순천김씨묘-099>의 3회, {식브다}<순천김씨묘-099>의 2회, {식브다녀}<순천김씨묘-135>, {식브다니히에라}<순천김씨묘-164>
김훈(1)	{식베라}<순천김씨묘-068>
<진주하씨묘> 광주(12)	{식버}<진주하씨묘-108/광씨-70>, {식브거니완}<진주하씨묘-138/광씨-50>, {식브니}<진주하씨묘-043/광씨-53>의 3회, {식브으을시}<진주하씨묘-140/광씨-2>, {식브}<진주하씨묘-083/광씨-65>의 5회
<이동표가> 이동표(1)	{식브니}<이동표가-16>

그러므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십브-’는 ‘닙브니라<東新 孝8,78b>, 겨집비라<東續 烈,5b>, 첩비라<東新 烈8,88b>’ 등과 같은 중철 표기로 이해된다.

13) 배영환·신성철·이래호(2013)에서는 작성 시기를 ‘1658~1700년’으로 판단하였다.



〈순천김씨묘〉의 '신천강씨'와 '김훈'은 '순천김씨'의 친정 부모이다. '식브-'는 '신천강씨' 21회, '김훈' 1회 나타난다. 〈진주하씨묘〉에서는 '곽주'가 12회 사용한다. 〈이동표가〉에서도 '이동표'가 1회 사용하는데, 이 편지는 '1683~1698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식브-'가 17세기 후기까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세대'가 사회적 변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시브-'의 분포 양상에서 확인된다. (1)에 제시된 가문 언간에는 '시브-'도 나타나는데, '식브-'를 사용하는 선대는 '시브-'와 혼용하나, 후대는 오로지 '시브-'만 사용한다.

(2) '시브-'의 분포

〈순천김씨묘〉	신천강씨(6) <sup>14)</sup>	{시버}〈순천김씨묘-094〉 외 2회, {시베라}〈순천김씨묘-128〉, {시브고}〈순천김씨묘-093〉, {시브다}〈순천김씨묘-127〉, {시브밑시}〈순천김씨묘-114〉
	0	
	세	
대	김훈(4)	{시베라}〈순천김씨묘-054〉, {시브니}〈순천김씨묘-083〉, {시브디}〈순천김씨묘-054〉 외 2회
	1	{시브니}〈순천김씨묘-051〉 외 2회, {시브되}〈순천김씨묘-051〉, {시브}〈순천김씨묘-118〉 외 4회,
	1	채무이(7)
세		
대	곽주(7)	{시브거든}〈진주하씨묘-072/곽씨-42〉 외 3회, {시브니}〈진주하씨묘-143/곽씨-20〉 외 2회, {시브}〈진주하씨묘-121/곽씨-47〉 외 2회
	1	{시브오이다}〈진주하씨묘-040/곽씨-113〉
	1	곽형창(2)
세		{시브오니}〈진주하씨묘-014/곽씨-110〉 외 2회
		{시브옴고}〈진주하씨묘-162/곽씨-107〉
		{시브오니}〈진주하씨묘-165/곽씨-109〉
대	곽유창(1)	{시브지}〈진주하씨묘-160/곽씨-111〉
	1	{시버이다}〈진주하씨묘-163/곽씨-141〉
	1	현풍곽씨(1)
〈이동표가〉	이동표(12)	{시브다}〈이동표가-08〉 외 2회, {시브오니}〈이동표가-25〉 외 3회, {시브오되}〈이동표가-20〉 외 2회, {시브오디}〈이동표가-28〉, {시브오이다}〈이동표가-23〉 외 3회, {시브}〈이동표가-35〉

14) 〈순천김씨묘〉에는 '시브-' 6회에 '시브-'가 1회 나타나는데, '시브-'의 용례는 김도

〈순천김씨묘〉에서는 ‘신청강씨’와 ‘김훈’뿐만 아니라 아랫대인 사위인 ‘채무이’도 ‘시브-’를 사용한다. ‘신청강씨’는 ‘21 대 6’으로 ‘식브-’의 사용량이 높는데, ‘김훈’은 ‘1 대 4’로 ‘시브-’의 빈도가 높아서, 발신자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또한 세대별로는 선대의 발신자는 ‘식브-∞시브-’가 나타나지만, 후대의 발신자는 ‘시브-’만 사용한다. 이러한 흐름은 〈진주하씨묘〉에서도 나타난다. ‘곽주’는 ‘식브-∞시브-’가 ‘12 대 7’로 나타나며, 자식 세대에는 오로지 ‘시브-’만 보인다. 정리하자면, 윗대에서는 ‘식브-∞시브-’의 혼용이 적용되지만, 아랫대에서는 ‘식브-’가 사라지고 ‘시브-’만 사용하는, 세대에 따른 어휘 형태의 수용이 달리 나타난 것이다. 특히 동일한 가문 내의 편지를 보여 주는 〈진주하씨묘〉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sup>15)</sup>

15세기 인간에는 ‘싶-’ 구문이 나타나지 않는다.<sup>16)</sup> 그러다가 16세기에 ‘식브-’와 함께 ‘시브-’가 나타나는데, 〈순천김씨묘〉는 16세기 중후기, 〈진주하씨묘〉는 17세기 전기, 〈이동표가〉는 17세기 중후기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식브-’는

---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니년느로 가고져 호느니 보고 {시브코}〈순천김씨묘-092〉

조항범(1998)의 판독 이래로 황문환 외(2013)에서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용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판독이 얼마나 정확하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북대학교 박물관(2002)에 실린 원본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해당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고 많이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첫째, ‘내년으로 가고자 하니 보고 싶은가 하고’의 의미로 보고 있으나(조항범 1998: 464, 안주호 2005: 80), 명확하지 않다. 둘째, ‘시브-’에 ‘·’가 나타난 경우는 〈순천김씨묘〉에서 이 용례가 유일하다. 셋째, ‘시브코’로 판독된다면 ‘시브-+·+호고’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코’ 결합형은 ‘만코(〈땡-+고〉), 곤코(〈곤(困)+호고〉), 결단코’ 등처럼 ‘냐,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에 ‘고’ 또는 ‘호고’가 연결된 경우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브코’〈순천김씨묘-092〉가 정확한 판독이 아닌 듯하여 이 글에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 15)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순천김씨묘〉는 윗대인 ‘신청강씨’와 ‘김훈’과 아랫대인 사위인 ‘채무이’는 동일한 가문의 구성원이 아니다. 윗대의 편지들은 ‘채무이’의 처가에서 보낸 것이므로 가문에 따라 어휘 형태의 변화 과정이 달리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16) 배영환(2012)에서는 〈신창맹씨묘 출토 인간〉을 15세기 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15세기 인간으로 유일하다.

분담량은 빈약하였으나, 17세기에도 통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간에서는 선대가 ‘식브-ㅅㅂ-’ 혼용 단계이지만 후대, 즉 자식 세대에는 ‘시브-’ 단계로 바뀌고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순천김씨묘>의 ‘채무이’(1537-1594)와 ‘곽주’(1569~1617), 그리고 ‘이동표’(1644~1700)의 생몰년을 보면, 한순간에 ‘식브-ㅅㅂ-’ 단계에서 ‘시브-’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역 또는 가문에 따라서 단계의 진전이 달리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식브-ㅅㅂ-’ 혼용 단계는 16세기만 아니라 17세기도 해당된다. 이 시기는 쌍형 어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조항범 1998: 559).

앞에서 제시된 쟁점 중에서 “‘식브-’시브-’는 ‘ㄱ’의 탈락으로 형성된 것인가?”와 “‘신브-’/‘ㅅㅂ-’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에 대해서는 ‘식브-’ 형태에서 ‘식브-ㅅㅂ-’의 혼용 단계, ‘시브-’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ㄱ’의 탈락으로 ‘식브-’가 ‘시브-’로 변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왜 ‘ㄱ’이 탈락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sup>17)</sup>

### 3.2. ‘신브-’와 ‘ㅅㅂ-’의 가치

‘신브-’와 ‘ㅅㅂ-’는 10권 10책의 『번역소학』(1518)에서 1회 나타난다. 그런데 현존하는 책은 원간본이 아니라, 교정청(校正廳)에서 간행한 『소학언해』(1587)보다 앞선 16세기 중기에 복각(復刻)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브-, 신브-, ㅅㅂ-’의 혼용에 대해, 손세모들(1996: 391)에서는 ‘식브다’와 ‘신브다’가 혼용되고, ‘ㅅㅂ다’ 형태가 나타난 것은 그 형태가 엄격하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17) ‘채무이’(1537-1594)의 장인과 장모인 ‘김훈’과 ‘신천강씨’의 생몰년을 알기 어렵다. 단지, ‘채무이’가 1537년에 태어났는데, 장인과 장모 중 장모는 최소한 16세기 초기, 대략 1510-20년대에 태어난 것으로 판단된다(조항범 1998: 10). 이러한 ‘김훈’과 ‘신천강씨’가 ‘식브-ㅅㅂ-’의 혼용 단계에 놓였다는 것은 어쩌면 15세기에도 ‘시브-’가 사용되었을 추정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전 시기에 ‘식브-’와 ‘시브-’의 접촉이 발생하여, 16세기의 혼용 단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언어 접촉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ㄱ’ 탈락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된다.

라 하였고, 특히 ‘십브다’를 ‘식브다’에서 ‘십다’로 바뀐 증거로 보았다. 조항범(1998: 186)에서는 ‘시브-’는 근대국어 이후에 나타나며 16세기에는 ‘십브-, 신브-’가, 17세기에는 ‘시프-, 시브-’ 등이 우세한데, ‘십브-’는 어말 자음 ‘ㄱ’이 ‘ㅂ’으로 교체된 것으로 설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2009)에서는 ‘십브-’가 ‘식브-’의 ‘ㄱ’이 뒤의 ‘ㅂ’의 영향을 받아 ‘십브-’로 동화되는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보았고, 정윤자(2014: 33)에서도 ‘신브-, 십브-’를 ‘식브-’의 동화 표기와 관련하여, ‘십브-’는 ‘식브-’에서 조음위치동화를 겪은 것이고, ‘신브-’는 조음위치동화로 인해 ‘십브-’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식브-’와 ‘십브-’의 공존에 대해 PK-교체로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중세국어 시기에 ‘습~속(裏)’으로 공존하고 있어 PK-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신브-’를 설명하는 부가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09)나 정윤자(2014)의 조음 위치 동화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각 음운 변화가 16세기 국어에서 일어난 현상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십브-’와 ‘신브-’가 『변역소학』에 1회씩 나타나는 점을 중시하여 첫째, 16세기부터 ‘식브-∞시브-’의 혼용 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현존의 『변역소학』이 『소학언해』(1587)보다 앞선 16세기 중기 무렵에 복각되면서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브-’의 ‘시’의 받침에 어떤 음가가 들었다는 발행인의 단발적 오분석 내지 오기로 인하여 ‘ㄱ’뿐만 아니라 ‘ㄷ, ㅂ’ 받침의 용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ㄱ, ㄷ, ㅂ’은 파열음 부류로 묶이는 음성적 유사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식브-→신브-/십브-→시브-→시프-’의 역사적 변화 과정으로는 ‘신브-/십브-’가 중요한 단계로 간주되나 ‘십브-’와 ‘신브-’의 출현은 단지, ‘식브-∞시브-’의 혼용 단계에서 생산된 부산물이다.

### 3.3. ‘시브-’와 ‘시브-’의 분포

- (4) ‘시브-’가 사용된 언간  
 〈송준길가〉, 〈창계〉, 〈숙명〉, 〈숙휘〉, 〈선세언적〉, 〈충암공〉, 〈선찰〉, 〈선

세언독), <자손보전>, <추사가>, <추사>, <순원어필>, <순원봉서>, <봉서>, <김성일가>

이들은 ‘시브-’만 나타나거나 ‘시브-’가 대부분인 조선시대 한글 편지이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해당되는 대부분의 언간에서는 ‘시브-’가 주류이다. 한편, 시브-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 3회 발견된다. 예) 넋디 아널가 {시불씨} <송시열-1, 1671년, 송시열(시할아버지)→밀양박씨(손자며느리)>, 점점 퍼덜가 {시브니} <선찰-9-052, 1699~1700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네 스당인가 {시브니} <자손보전-04, 1704년, 완산이씨(어머니)→맹숙주(아들)>. ‘시브-’는 17세기 후기의 언간에서 주로 나타난다. 모음조화 붕괴로 인한 ‘->·’ 변화일 수도 있으며, ‘·’의 2단계 비음운화인 ‘·>—’ 변화에 대한 과도 교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 3.4. ‘시프-’의 분포와 형성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 ‘시프-’는 17세기 언간, 그것도 특정의 편지에서 단 세 개만 나타난다. 몇몇 가문의 편지가 아닌 한 가문의 편지에서 3개가 모두 나타나는데, 1633년이라는 시기적 공통점도 보인다.

(5) ‘시프-’의 용례<sup>18)</sup>

가. 어이 견더리 {시프커니와} <선세언독-05, 1633년, 진성이씨(어머니)→진주정씨(딸)>, 아널가 {시프니} <선세언독-03, 1633년, 진성이씨(장모)→송준길(사위)>, 또 란는가 {시프니} <선세언독-06, 1633년, 송준길(남편)→진주정씨(아내)>

나. 무스히 인는가 {시브니} <선세언독-01, 1668~1672년, 송준길(시할아버지)→안정나씨(손자며느리)>

18) 원순모음화와 격음의 중첩 표기가 반영된 ‘ㅅㅍ-’가 19세기 후기 자료인 <송병필가>에 1회 나타난다. ‘너 호고 {ㅅㅍ} 디로 하여라 <송병필가-86, 미상, 미상(형)→미상(아우)>.

언간에서 ‘시프-’는 오로지 <선세언독>에서, 송준길(1606-1672)의 장모인 ‘진성이씨’가 각각 딸과 사위에게 보낸 편지와 송준길이 아내인 진주정씨(1604-1655)에게 보낸 편지에서 1회 나타난다. 그런데 (5나)에서처럼 송준길이 3,40년 뒤에 손자며느리에게 보낸 편지는 ‘시브-’가 사용된다.

다른 가문이나 다른 시기의 언문에는 전혀 ‘시프-’가 출현하지 않으며, 오로지 <선세언독>, 그것도 ‘진성이씨’의 언간에서만 ‘시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3회 나타나지만 ‘시프-’는 송준길 가문이 아닌 송준길의 처가 또는 ‘진선이씨’가 사용하는 형태로 이해되며, 송준길이 사용한 1회는 시기적 일치로 판단하건데 언어 접촉에 의한 일시적 수용인 것이다. ‘시브-’가 3,40년 뒤에 보낸 편지에서 1회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나, <선세언독>에 실린 후대의 편지에서는 ‘시브-’형으로 27회, 예를 들어, “뭇 올가 {시브니}<선세언독-17, 1668~1696년, 송병하(남편)→안정나씨(아내)>” 등처럼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송준길가>는 ‘시브-’가 주류인 가문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상황은 간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시프-’는 17세기 자료인 『가례언해』(1632)와 『첩해신어』(1676)에서 사용된다.

(6) 간본 자료의 ‘시프-’

楯이 두툽고자 {시프나}<가례언해 5:6a>, 도홀가 시프외<첩해신어 7:12b>, 디접흐시미 도홀까 {시프외}<첩해신어 7:11b>, 도홀까 시프다 <첩해신어 7:20b>

『가례언해』는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되고 발행인이 한 명뿐이어서 강원도 방언이 반영된 문헌으로 평가된다.<sup>19)</sup> 『첩해신어』는 발행인으로 역관인 중인 계층이 관여한 왜학서이므로 국어사 문헌 자료 중에서 계층을 달리하는 문헌인 것이다. 그러나 <첩해신어>(1676)에는 ‘시프-’만 3회 나타나지 않으며 ‘시브-’가 6회 나타난다. ‘시프-∞시브-’의 혼용 단계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프-’가 제7권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7:11b, 12b, 20b) 간행본의 제작 과정에서

19) 서지 정보는 홍윤표(1993: 1-14)를 참조할 수 있다.

제7권을 담당한 일본어 역관 등의 언어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프-'는 당시의 언중 모두가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사람, 또는 특정 가문의 사람이라는 제한된 사용 영역을 지닌 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5가)의 '시프-'는 송준길 처가 혹은 장모인 '진성이씨'의 선호 형태로 보인다.

16.7세기 국어에서 '싫-'의 변화 단계는 '식브-∞시브-'의 혼용 단계에 해당하는데, '시프-'가 17세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식브-'와 '시브-'와 함께 '시프-'도 존재하였는 의미를 지닌다. 단지 '시프-'가 16세기 또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장모인 '진성이씨'가 딸인 '진주정씨'를 1604년에 낳았으므로,<sup>20)</sup> '진성이씨'의 생년과 언어습득이 15세기 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16세기에든 '시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세 번째 쟁점인 "'시프-', '십(싫-)'의 형성 과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기본이 마련되었다. 먼저, '시프-'를 검토하고, 이어서 '십-'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항범(1998: 186)에서는 '시프-'는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시프-'는 '-프-'를 가지는 다른 형용사에 유추된 어형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안주호(2005: 77)는 이를 따른다고 하였으며, 정운자(2014: 34-35)에서는 '시프-'가 '저프-, 슬프-, 아프-, 고프-' 등의 '-프-'에 유추되어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아, 조항범(1998: 186)의 견해를 자세히 풀어 설명한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2009)에서는 '십브-'의 둘째 음절 '-'가 탈락하고 된소리가 유기음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김양진(2006: 141)에서 보이는 '식브-→신브-/십브-→시브-→시프-'와 같은 역사적 변화를 토대로 삼아 설명된 것이다. 즉 '시브-'를

20) 송준길 집안 가계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가: 35-36)을 참조할 수 있으나 처가의 생몰 연도 등의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 자료의 부족으로 명백한 증명은 어렵지만, 16세기 국어에서는 '식브-∞시브-∞시프-'라는 형태가 존재하였고, '식브-'와 '시브-'의 경쟁에서 '시브-'가 대세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으나, '시프-'는 제한된 영역에서 계승되어 '시브-'와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계승하여 '시프-'로 변화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시프-'가 비록 시기적으로는 '식브-'와 '시브-'보다는 늦은 시기의 용례로 확인되지만, 그리고 '식브-'와 '시브-'와 달리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언뜻 나타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식브-'나 '시브-'를 계승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최소한 '식브-〰시브-' 혼용 단계에 '시프-'도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십-'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언학(2007: 주37))에서는 '시브-'의 '으'를 매개모음으로 재분석하여 형성된 어형으로 보았다. 언간에서 '십-'은 <송병필가>에서 9회, <추사가> 1회 보이는데, 대체로 각 언간에서도 후대의 발신자가 작성한 편지에서 나타난다.

#### (9) '십-'의 용례

- 가. {십다}<송병필가-60, 1890년, 전주이씨(언니)→전주이씨(여동생)>, {십스오나}<송병필가-65, 20세기\_\_전반, 미상(여동생)→미상(언니)>, {십스음}<송병필가-39, 1921년, 윤씨(사돈)→미상(사돈)>, {십습나이다}<송병필가-82, 1909년, 광산김씨(며느리)→전주이씨(시아머니)>, {십습늑이다}<송병필가-42, 1903년, 은진송씨(첫째\_\_딸)→전주이씨(어머니)> <송병필가-85, 1908년, 이순구(남동생)→한산이씨(누나)>, {십은}<송병필가-86, 미상, 미상(형)→미상(아우)>, {십지}<송병필가-42, 1903년, 은진송씨(첫째\_\_딸)→전주이씨(어머니)> <송병필가-60, 1890년, 전주이씨(언니)→전주이씨(여동생)>  
 나. {십스오나}<추사가-45, 1897년, 김관제(庶弟)→김한제(孀兄)>  
 다. {십분}<송병필가-48, 20세기\_\_전반, 은진송씨(둘째\_\_딸)→전주이씨(어머니)>

<송병필가>에서 <송병필가-60>의 '전주이씨(여동생)'은 '송병필'의 아내이며, '전주이씨(언니)'는 다른 집안으로 출가한 경우이다. 그런데 남편인 송병필이 보낸 <송병필가-14> <송병필가-09>, 친정어머니인 여산이씨가 보낸 <송병필가-70>, 아버지인 이용연이 보낸 <송병필가-52>, 시아버지인 송지수가 보낸



〈송병필가-23〉 등에서는 '시부-'로만 나타나는데, 오로지 언니가 보낸 편지에서만 '십-'이 나타난다.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비교적 알려진 〈송병필가-82〉, 〈송병필가-42〉 등은 비교적 후대가 작성한 것이며, 나머지도 최소 10-20년 뒤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부-'에서 '십-'으로 변화 과정에서도 언어 접촉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윗대인 조부, 친부모, 그리고 남편까지 '시부-'를 사용하지만, 동기이지만 다른 집안에 출가한 '언니'의 편지부터 '십-'이 나타나 아랫대인 며느리와 딸 등에게서 '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9다)는 '십-'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예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시부-'를 '십-+-으X'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며, 이런 중철 표기는 체언과 조사, 용언의 여간과 어미의 결합 환경에서만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시부-'의 기본 형태를 '십-'으로 인식하여,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시부-'가 아닌 '십-'으로 쓴 것이며, 모음 앞의 '십은'처럼 그 형태가 점차 굳어진 것이다.<sup>22)</sup>

### 3.5. '시부-'의 분포와 형성

18세기 언간에서 '시부-'가 나타난다. '시부-'에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결과임은 명확한데,<sup>23)</sup> 원순모음화가 널리 일반화된 시기가 18세기이기 때문이다.<sup>24)</sup>

22) 이러한 인식은 17세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십브-'부터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12)를 참조할 수 있다.

23) 간본 자료에서 '시부-'가 사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도홀가 {시부대}〈개수첩해신어 6:19b〉, 오논가 시보오니〈개수첩해신어 1:14a〉, 敏과져 {시부니라}〈논어울곡언해 1:40a〉, 모득홀가 {시부노}〈천의소감언해 4:21b〉, 글인가 {시보거니와}〈천의소감언해 4:73b〉, 적을가 시부다〈청어노결대언해 3:7a〉, 나간가 {시부다}〈몽어노결대 5:2b〉

24) 전광현(1967: 86)에서는 「역어유해」(1690)에서 그 예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17세기 후기에 완성된 것이라 하였다. 이기문(1972: 202-203)에서는 원순모음화가 문헌상으로 「역어유해」(1690)에서 확인되고, 「동문유해」(1748)에서 매우 많은 용례가 나타나, 일반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17세기 후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추정하였다.

연간 자료에서는 ‘시부-’가 18세기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18세기 이후의 모든 연간에서 ‘시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시부-’가 사용된 연간과 그 회수는 <월성이씨> 4회, <선세언적> 5회, <추사가> 1회, <추사> 1회, <김성일가> 34회, <명성이씨> <명성황후> 각 1회 등 ‘명성황후’ 관련 2회, <송병필가> 9회 등이며,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 중기까지 작성된 <송준길가>, <선찰>, <선세언독>, 19세기 말기의 <순원어필> <순원봉서>에서는 ‘시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0) ‘시부-’의 용례

- 가. {시부니}<월성이씨-1, 1716년, 월성이씨(어머니)→권순경(아들)>  
 <월성이씨-1, 1716년, 월성이씨(어머니)→권순경(아들)> <월성이씨-3, 1716년, 월성이씨(어머니)→권순경(아들)>, {시부}<월성이씨-3, 1716년, 월성이씨(어머니)→권순경(아들)>
- 나. {시부니}<선세언적-14, 1762~1767년, 안동권씨(할머니)→박경규(손자)> <선세언적-14, 1762~1767년, 안동권씨(할머니)→박경규(손자)>, {시부대}<선세언적-14, 1762~1767년, 안동권씨(할머니)→박경규(손자)> <선세언적-16, 1784~1790년, 덕수이씨(어머니)→박경규(아들)>, {시부디}<선세언적-14, 1762~1767년, 안동권씨(할머니)→박경규(손자)>
- 다. {시부대}<추사가-16, 19세기, 미상(어머니)→호순\_\_부\_\_내외(딸과\_\_사위)> ∞ {시부나}<추사가-15, 19세기, 미상(어머니)→호순\_\_부\_\_내외(딸과\_\_사위)>
- 라. {시부디}<추사-30, 1842년, 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 {시부디}<추사-07, 1818년, 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시부오니}<추사-21, 1841년, 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 마. {시부니}<김성일가-110, 1848년\_\_전후, 의성김씨(셋째\_\_딸)→김진화(아버지)> ∞ {시부오니}<김성일가-110, 1848년\_\_전후, 의성김씨(셋째\_\_딸)→김진화(아버지)>
- 바. {시부기}<명성이씨-1, 1894년경, 명성황후(재당고모)→민병승(재종질)>, {시부니}<명성황후-076, 1882~1895년, 명성황후(고모)→민영소(조카)> ∞ {시부니}<봉서-23, 1886~1895년, 명성황후(시외종동서)→연안김씨(내종동서)>, {시부오니}<봉서-25, 1886~1895년, 명성황후(시외종동서)→연안김씨(내종동서)> <봉서-33, 1886~1895년, 명성황후(시외종동서)→연안김씨(내종동서)>

(10가나)는 발신자가 '시부-'만 사용한 경우이다. <월성이씨>는 1716년에 작성된 3건의 개별 언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부-'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선세언적>의 '안동권씨', '덕수이씨'에서도 나타난다. (10다-바)는 두 형태를 모두 사용한 경우이다. <추사가>에서는 14회가 나타난 '시부-'가 전체적인 경향이나 19세기에 작성된 <추사가-16>에서만 '시부-'가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인이 작성한 <추사가-15>에서는 '시부-'도 쓰인다. 특정의 발신자에게 '시부-'가 발견되는 것은 <추사>나 <김성일가>, '명성황후 관련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가문 언간에서는 발신자 개인의 선호 양상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문 언간 중에서 '시부-' 형태가 주류인 경우는 <선세언적>, <추사가>이며, '시부-'가 주류인 경우는 <김성일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처럼 '안동권씨', '덕수이씨'는 '시부-'만 사용하고, <추사가>의 19세기 미상의 어머니 (10다)나 <김성일가>의 셋째 딸(7마)에서는 '시부-'가 사용된다. 가문(또는 지역)에 따라 원순모음화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이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발신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시부-'와 '시부-'의 변화에는 세대라는 변인이 적용된 듯하다. (10나-다)의 발신자는 비교적 후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부-'가 대다수인 <김성일가>에서는 후대에 포함된 셋째 딸에게만 '시부-'와 '시부-'가 나타난다는 것은 세대라는 변인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세대라는 것은 보통 역사적인 음운 변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역사적 음운 변화에 대해 역방향을 보이는 <김성일가>의 셋째 딸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셋째 딸이 편지를 쓸 시기에는 이미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송준길가>의 송준길이 '시프-'를 사용한 것은 처가 또는 장모의 '시프-'에 대한 접촉으로 설명한 것과 맥락이 같다.

## 4. ‘싶-’ 구문의 통사적 변화

김흥수(1987: 167)에는 ‘-고 싶-’와 ‘-고져 식브-’의 연관성이 언급되었고, 손세모들(1995: 157, 1996: 311)에서 이들의 선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정언학(2007: 152)도 이에 포함된다. 이영경(2005)와 안주호(2005)에서는 ‘싶-’ 구문 구조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정혜선(2010: 180)에서는 ‘싶-’ 구문에 통합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통합 양상을 통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4.1. 중세국어의 ‘싶-’ 구문

15세기 언간으로 알려진 편수는 매우 적는데,<sup>25)</sup> ‘싶-’ 구문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15세기의 ‘싶-’ 구문은 15세기 간본 자료로만 확인된다. 15세기의 ‘싶-’ 구문에 사용된 어미는 비교적 단출하며, 크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양분된다.

#### (11) 중세국어의 ‘싶-’ 구문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식브-	나고져 식브녀<월천 48a>, 우르고져 식브니<두초 10:28b>, 죽고져 식브거든<삼강(런던대본) 烈:13>, 먹고져 식브<구간 2:88a>
15세기 (의문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	-는가 식브-	나신가 식브건마룬<월석 4:33b>, 니른가 식브거늘<구방 上:48b>
	-르가 식브-	바둥가 식브니<월석 25:46a>, 주글가 식브닐<구간 2:16b>, 떠달이 식브거든<구간 7:71b>

25) 15세기 말 편지로 추정되는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가 존재한다. 배영환(2012)를 참조할 수 있다.

---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식브-: ㄱㄹ치고져 식브니라<번소 6:7b>, 죽고져 시브 거든<삼강<동경대본> 烈:13a>, 주고져 시브대 로<장수경 31a>
16 세 기	(의문형)종결어미 -ㄴ가 시브-: 드는가 시브거든<장수경 54a>
통합 형식	-ㄴ가 식브-: 몬홀가 식브거든<이훈 30b>, 도월가 십브거든 <번소 7:18b>

연결어미와 통합되는 '-고져 식브-'의 형식은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고, 의문형 종결어미와 통합되는 '-ㄴ가/ㄹ가 식브-'의 형식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sup>26)</sup> 그런데 의문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으로 분류된 '져제 종괴 뼈딜이 식브거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기와 달리 위의 도표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 '-ㄹ가 식브-' 통합 형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영경(2005: 6-7)에서는 '뼈딜이'를 '뼈디리'의 과도 분철로 보고, 평서형 어미로 처리하였고, 정혜선(2010: 주6)에서는 과도 분철이 15세기의 일반적 표기법이 아니라 하여 그 분류와 의미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였다. 그런데 『구급간이방』의 해당 부분은 한문 '妬讎將潰'에 대응되며, '젓에 난 종기가 터지려 하거든'의 의미를 가진다. '젓에 난 종기 터지겠다 싶거든'(이영경 2005: 7)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해답은 『구급간이방』의 이본에서 구해진다. 16세기 이본인 『구급간이방』(영남대본)에는 이 부분이 '뼈딜가 식브거든'으로 인쇄되어 있어 의문형 종결어미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다.<sup>27)</sup> 그럼, '-ㄹ이'를 의문형 어미로 볼 수 없을까? 15세기 국어에는 의문형 종결어미 '-ㄹ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ㄹ이'로 볼 여지가 없다. 즉 의문형 어미 '-ㄹ가'의 오기 내지 탈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sup>28)</sup> 16세기 간본 자료에서도 15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희망을 의미하는 '-고져 식브-'와 추측을 의미하는 '-ㄹ가 식브-', '-ㄴ가 시브-'가 확인된다.

---

26) 최현배(1937: 711-712)에서 통합 유형에 따라 희망과 추측으로 이분한 이래로 후속 논의에서 수용되어 왔다.

27) 이 문헌은 영남대 중앙도서관에 등록번호 '古貴-Y0160297'로 보관되어 있으며, 디지털 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에서 원문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28) 그러나 원자료의 판독을 중시하여 '이'를 '가'로 수정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순천김씨묘〉는 16세기 후기 자료이다.<sup>29)</sup> 간본 자료보다 ‘싫-’ 구문의 통합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언간은 일상의 사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황문환 2002가: 138), 화자의 심리 표현과 관련된 심리 형용사는 구어 자료인 언간 자료 등에 흔히 보이기 때문이다(이영경 2005: 2-3). 〈순천김씨묘〉에서 ‘싫-’ 구문이 사용된 용례는 전체 40회이다. 순천김씨의 친정 부모인 ‘신천강씨’와 ‘김훈’의 편지에서 각각 23회, 5회, 순천김씨의 남편 ‘채무이’에게 7회가 나타난다.

[발신자: 0세대 - 신천강씨(친정어머니)]<sup>30)</sup>

희망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식브-: 죽고져 {식베라}(2회), 죽고져 {식브고}, 오고져 {시브다}
		-고라자 식브죽고라자 {식브고}
		-: -
		-려니 식브-: 보려니 {식브다려}
	전성어미 통합 형식	-(으)ㄴ 시브아니 난 {시브밀시}
		-: -
추추	(의문형)종결어미 통합 형식	-ㄴ가 식브-: 흥가 {식베}, 녀닌가 {식베라}, 내는가 {식브다}
		-르가 식브-: 미출흥가 {식베라}, 살가 {식브거든}, 브릴가 {식브고}, 드릴가 {식브니}, 나갈가 {식브니} □□날가 {식브다}, 살가 {식브다니히에라}, 주글가 {식베}
		-르고 식브-: 흥릴고 {식베라}, 엇디흥고 {시베라}
		-랴 식브-: 설오랴 {식베라}
		-뇨 식브-: □흥려뇨 {식베라}, 오겨뇨 {식베라}, 엇디려뇨 {시브고}
	(감탄형)종결어미 통합 형식	-도다 식브-: 주로다 {식베}, ㄹ이업도다 {식브니}
	의존명사 통합 형식	썬덩 시브-: 주글 썬덩 {시베}

29) 조항범(1998: 23)에서는 ‘1550년대~임진왜란 전’에 쓰인 것으로 보았고, 황문환 외 (2013)에서는 ‘1550~1592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30) 판독문을 검토하면 ‘아니 난 {시브밀시}, 주글 썬덩 {시베}’의 ‘싫-’ 구문은 연결어미, 의존명사 통합 형식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발신자: 0세대 - 김훈(친정아버지)]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라자 식브-: 죽고라자 {식베라}  
 (의문형)종결어미 -ㄴ가 시브-: 된가 {시베라}  
 통합 형식 -ㄴ가 시브-: 견딜가 {시브디}, 볼가 {시브디}  
 -리 시브-: 엇찌리 {시브니}

[발신자: 1세대 - 채무이(남편)]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시브-: 녀러오고져 {시브되}  
 (의문형)종결어미 -ㄴ가 시브-: 그런가 {시브니}, 호가 {시브}, 호는가 {시브}  
 통합 형식 -ㄴ가 시브-: 될가 {시브니}, 갈가 {시브}, 든닐가 {시브}

선대인 순천김씨의 친정 부모 편지에서는 '싫-'과 결합된 다양한 통합 형식이 나타나지만, 순천김씨의 남편인 '채무이'의 편지에서는 간본 자료의 일반적인 통합 형식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신천강씨'와 '김훈'은 '채무이'의 장모와 장인으로 그 가문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순천김씨의 친가에서는 다양한 통합 형식을 사용하던 언어 집단이지만, '채무이'의 가문에서는 단순화된 일반적인 통합 형식을 사용한 언어권이라는 해석이다. 그런데 두 가문의 언어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의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증명하기 쉽지 않다.<sup>31)</sup> 두 번째는 역사적 변화의 선후가 순차적으로 반영되었다는 해석이다. '신천강씨'와 '김훈'은 시기적으로 앞선 세대이고 '채무이'는 아랫대이므로, 그대로 구문 구조의 역사적 변화를 겪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오'계 의문형, 즉 '-르고, -뇨' 등이 아랫대인 '채무이' 편지에서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오'계 의문형이 점차 사라지는 역사적 변화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이'(1537-1594)는 16세기 언어를 구사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순천김씨묘>에서 '오'계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는

31) 이 주장은 3장에서 논의되었던, 가문에 따라 '싫-'의 형태 변화가 달리 진행되었다는 견해를 차용한 것이다.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 17-9세기의 다양한 인간의 여러 발신자가 '-고'를 사용하고 있는 반증도 나타난다.<sup>32)</sup>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경우처럼 후대 자료에서 그 용례가 나타난다면 '채무이' 편지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구문 구조의 역사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세대 교체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가능성이 낮게 된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 계층, 연령, 성, 수신자와의 관계와 세대도 변별 요인이 되지 못하므로, 발신자의 성씨, 즉 출신 가문을 따라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순천김씨의 친가에서는 순천김씨의 시가에 비해 '싶-' 구문의 통합 형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두 가문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순천김씨묘>의 '싶-' 구문을 15,6세기 간본 자료와 비교해 보면 연결어미 통합 형식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고라쟈 식브-', '-려니 식브-', '-니 시브-', '썩당 시브-'가 나타나는데,<sup>33)</sup> 이러한 형식은 후대의 인간 자료나 간본 자료에서 재현되지 않으며, 16세기 국어사 자료를 통틀어 오로지 <순천김씨묘>에서 나타난다.

32) 용례와 설명은 후술된다.

33) 형태와 기능면에서 '-고라쟈 식브-'의 '-고라쟈'가 '-고져'와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것으로(정혜선 2010: 173, 조항범 1998: 195)에서는 '-고쟈'의 변형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영경(2005: 17)에서는 '청원'을 표현하는 종결어미 '-고라'와 '소망'을 표현하는 종결어미 '-아자(<-아져)'가 결합된 복합형으로, 소망을 강하게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논의는 각 유형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단지, '-고라쟈'가 종결어미라 하더라도, '싶-' 구문의 통합 유형은 오로지 <순천김씨묘 출토 인간>에서 나타난다. 한편, '-려니'는 이영경(2005: 5)에서는 세부 설명을 하지 않았은 채 연결어미로 파악하였으며, 정혜선(2010: 173-174)에서는 '-려니'의 문법적 성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종결성이 강한 연결어미 '-니'와 결합한 것으로 본다.



(12) '신천강씨'의 특이 통합 형식

가. 역정히여 그리 흐라 하니 새 공스 아니 난 {시브밀식}〈순천김씨묘-114,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나. 내 주려 주글 썬덩 {시버} 슬드리 절오니〈순천김씨묘-094,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조항범(1998: 534-545)에서는 (12가)의 '싫-' 구문을 '아니난 시브밀식'로 판독하고, '아니했으면 싫음일세'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12가)는 편지 앞부분에 '남편의 색탐(色貪)'에 대한 하소연이 있고, '하녀인 매죽이를 역에 두자는 남편의 말에 역정을 내며 그렇게 하라 하였다'는 내용과 '매죽이도 새 공사가 아니 났으면 했는데 매죽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신천김씨가 생각했다'는 내용 사이에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12가)의 '싫-' 구문은 '희망'을 의미하는 '싫-' 구문의 통합 형식인 것이다. 또한 (12나)의 '싫-' 구문에 대해 조항범(1998: 474)에서는 '주글썬덩 시 버술'로 판독하고 '시 버술'을 미상으로 처리하였으며, 황문환 외(2013)에서 '주글썬덩 시버'로 판독하고 있다. 이 판독이 올바른 것이라면 '시브-'에 연결될 새로운 유형이 될 것이다.

안주호(2005), 이영경(2005), 정혜선(2010), 정운자(2014)의 논의에서는 〈순천김씨묘〉에서 다수의 의문형, 감탄형 종결어미 등을 정리하여 중세국어 '싫-' 구문의 통합 형식으로 분류하는 적극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들 논의에서 〈순천김씨묘〉의 용례를 모두 빼버리면 15,6세기 간본 자료의 용례에서 보듯이 '-고져, -니가, -니가'만이 '싫-'에 통합된다는 간단한 설명만이 가능하다. 〈순천김씨묘〉의 '싫-' 구문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처럼 (12)의 용례도, 비록 의미 파악이 현대 직관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충분한 설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2가)에서 '난'의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이며, 명사형 '시브'를 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명사가 아닌 명사형을 수식하는 경우는 오늘날에도 가능하지 않듯이 중세국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유형을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의 ‘신천강씨’의 오류, 오기 내지 판독의 오류 등으로 처리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돌릴 수도 있다.<sup>34)</sup> 그러나 최소한 개인어 또는 가문에서 사용된 형태 또는 유일한 용례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현대국어 직관으로는 자연스럽게 앞졌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시브-’에 연결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2나)의 ‘썬덩’에서는 후대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똥 시브-’가 17세기 언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sup>35)</sup> 중세국어에서 유사한 형식이 탐지된다면 의존명사의 통합 형식은 새로운 유형의 출현이 아니라 이전에 가능했던 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즉 ‘썬덩’은 ‘의존명사+조사’의 결합형으로 ‘싶-’ 구문에 통합되면서 의존명사가 연결되는 유형이 중세국어에도 가능하다는 증거로 해석된다.<sup>36)</sup> 15세기에는 ‘썬덩’으로 표기되며 ‘솔히 여위실 썬덩 金色光은 더욱 빛나더시다<석상 3:39b>’ 등에서 ‘뽀일지언정, 뽀이지미는’처럼 풀이된다. 그러나 (12나)가 사용된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굶주려 죽을 듯하여 (살들이 짧아지니(떨리니)?) 내가 이제 죽는다 한들 불쌍하다 하랴에 해당되며, 희망이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추측의 의미를 지닌다면 ‘썬’은 의존명사 통합 형식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듯싶-’에서 ‘듯’은 ‘보문의 내용과 유사한 것처럼’의 의미를 가지는데(이영경 2005:18), ‘썬덩’의 ‘썬’도 ‘보문의 내용을 그리할 따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의미적 유사점도 확인된다.

‘-ㄴ 시브-’와 ‘썬덩 시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싶-’ 구문의 유형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통합 형식’과 의존명사(+조사) 통합 형식까지 그 폭을 넓혀 보았다. 전성어미 통합 형식 ‘-ㄴ 시브-’는 (12가)의 용례가 국어사 자료에

34) 만약 오류 또는 오기로 본다면 ‘난’에 ‘가’가 빠진 것으로, 의문형 종결어미에 ‘시브-’가 연결된 추측의 의미를 지녔다고 설명되어야 하는 불합치가 존재한다.

35) 4.2.4장에서 자세히 기술된다.

36) 그런데 ‘썬덩’은 15.6세기 문헌에서만 주로 나타나는데, 16세기에는 『계초심학인문언해』(1577)의 ‘아니홀 썬덩 능티(82a)’처럼 ‘썬덩’이 사용된다. <이조어사전>에서는 ‘-덩’을 ‘토’, 즉 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명사 통합 형식'은 17세기부터 나타나는 '똥(똥) 시브-'에 이어지는 중세국어의 유일한 용례이다.

#### 4.2. 근대국어의 '싫-' 구문

의문형 종결어미의 변화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오면서 '오'계 어미가 점차 사라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인간의 17~19세기 자료에서도 중세국어의 '아'계 의문형 종결어미는 그대로 계승되지만, '오'계 어미는 '-고, -고'만 나타나는 축소의 경향을 보인다. 우선, 17세기 중후기의 <진주하씨묘>와 17세기 후기의 <이동표가>에서 나타난 '싫-' 구문을 유형별로 제시한다.

[발신자: 1세대 - 광주(남편)]<진주하씨묘>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시브-: 없음.  
 (의문형)종결어미 -는가 시브-: 이린가 {식브니}, 아닌가 {식브으올시}, 주근가 {시브니}, 께개는가 {시브니}  
 통합 형식 -르가 시브-: 이실가 {식비}, 갈가 {식브거니완}, 올가 {식브니}, 목을가 {식브니}, 업슬가 {식비}, 들가 {식비}(2회), 갈가 {식비}(2회), 도라갈가 {식비}, 아니홀가 {시브거든}, 둥호실가 {시브거든}(2회), 도라갈가 {시비}, 갈가 {시비}

[발신자: 1세대 - 진주하씨(아내)]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시브-: 없음.  
 (의문형)종결어미 -는가 시브-: 없음.  
 통합 형식 -르가 시브-: 브릴가 {시브오이다}

[발신자: 2세대 - 자식:곽형창(2)/곽의창(1)/곽유창(1)/곽이창(1)/현풍곽씨(1)]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시브-: 오고져 {시브오니}, 가읍고져 {시브오니}  
 (의문형)종결어미 -는가 시브-: 둥호가 {시브옵고}, 업스오논가 {시브오니}, 잇던가 {시브지}.  
 통합 형식 -르가 시브-: 없음

(감탄형)중경어미 -에라 시브-: 업세라 {시버이다}  
 통합 형식

[발신자: 이동표]<이동표가>

연결어미 통합 형식 -고져 시브-: 없음.  
 (의문형)종결어미 -는가 시브-: 아니흐시는가 {시브오니}, 나아는가 {시브오니}, 그  
 통합 형식 리흐는가 {시브오이다}, 병인가 {시브오이다}, 업는  
 가 {시브} -르가 시브-: 갈가 {식브니}, 도라올가도 {시브다}, 이실가 {시브  
 다}, 되올가 {시브오니}, 파홀가 {시브오되}, 극진홀가  
 {시브오되}, 느려오실가 {시브오이다} -랴 시브-: 보랴 {시브오되}

<순천김씨묘>의 ‘신청강씨’ 편지처럼 발신자 한 사람에게서 다양한 통합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연결어미 통합 형식의 ‘-고져 시브-’와 의문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 ‘-는가 시브-, -르가 시브-’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르고, -뇨’ 등의 ‘오’계 의문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sup>37)</sup>

#### 4.2.1. 연결어미 통합 형식

연결어미 통합 형식 중에서 17,8세기 언간에서도 간간히 나타나는 것은 ‘-고져 시브-’이며 19세기 언간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그 빈도는 중세국어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며, 소수의 발신자만 사용한다.

(13) 근대국어의 ‘-고져 시브-’

돈을 빼고져 {시브오이다}<선세언적-08, 1680~1692년, 남양홍씨(아내)  
 →박성한(남편)>, 기별호고져 {시브와}<선세언적-08, 1680~1692년, 남  
 양홍씨(아내)→박성한(남편)>, 가져오고져 {시브들}<선찰-9-038, 1698  
 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내가 업고져만 {시브}<순원봉서  
 -12,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37) 근대국어의 언간을 검토해 보면 ‘-르고 시브-, -르고 시브-’는 꾸준히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된다.

김흥수(1987: 167)에서 '-고 싶-'와 '-고져 식브-'의 연관성이 언급된 이래로, '-고져 식브-'보다 '-고 시브-'가 희망의 의미로 더욱 두드러진 쓰임새를 보인다고 하거나(안주호 2005: 82), 18세기가 되면 이 형식에서 '-고져'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고'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영경 2005: 35). 더욱이 정혜선(2010: 179)에서는 근대국어에서 몇 예만 확인되다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대국어 '싶-' 구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38)</sup> 그러나 (12)의 용례를 보면 '-고져 식브-'가 근대국어에서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sup>39)</sup> '-고 시브-'가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첩해신어』(1676)부터이며 18세기에 오면서 '-고'가 대세를 이루는데(안주호 2005: 82, 이영경 2005: 35),<sup>40)</sup> 언간에서도 '-고 시브-' 통합 형식은 간본 자료와 비슷하게 17세기 중기부터 나타난다.

(14) '-고 시브-' 통합 형식

가. 수이 알고 {시브오니}<첩해신어 5:11a>

나. 근대국어 언간의 용례

17세기: 불너오고 {시빅}<창계-12, 1649~1696년, 임영(남동생)→나주임씨(막내누나)>, 호고도 {시브디}<아니하디<선찰-9-052, 1699~1700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18세기: 먹고 {시부니}<월성이씨-3, 1716년, 월성이씨(어머니)→권순경(아들)>, 가고 {시브}<송준길가-67, 1757년, 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오고 {시부니}<선세언적-14, 1762~1767년, 안동권씨(할머니)→박경규(손자)>, 보내고 {시브디}<추사가-02, 1775년, 해평윤씨(숙모)→김노직(조카)>

38) 뒤에 제시된 도표에는 근대국어의 통합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정혜선 2010: 180).

39) 안주호(2005: 85)에서는 의미상 '-고져'에서 '-고'로 전화된 것이 아니라 보조용언 구성에서 선행 용언의 어미가 '-어'에서 '-고'로 통일되는 것에 유추되어 '-고져'가 '-고'로 바뀐 것으로 본다. 이영경(2005: 9-10)에서는 '-고져'의 '저'는 '희망'의 '-고'와 '-저'의 의미 중복에 대한 잉여 요소의 생략으로 설명한다.

40) 안주호(2005: 80-81)에서는 '-고 시브-'가 16세기부터 나타난다고 보았다. 예) 보고 {시브코}<순천김씨묘-092,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정혜선(2010: 주14)에서도 언간이 구어체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른 용례를 보인 것이라 하였으나, 원본 훼손 등의 문제로 판독의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11)를 참조할 수 있다.

19세기: 가고 {십스오나}〈추사가-45, 1897년, 김관제(庶弟)→김한제(嫡兄)〉, 가  
 읍고 {시브디}〈추사-07, 1818년, 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입히  
 고 {시부오나}〈김성일가-005, 1832년,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알고 {시븐}〈순원봉서-03, 1846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  
 동생)〉, 그리히고 {시부기}〈명성어필-1, 1894년경, 명성황후(재당고모)  
 →민병승(재종질)〉, 알고 {십다}〈송병필가-60, 1890년, 전주이씨(언니)  
 →전주이씨(여동생)〉

20세기  
 초기: 뵈읍고 {십스오나}〈송병필가-65, 20세기\_전반, 미상(여동생)→미상  
 (언니)〉, 보고 {십스옴}〈송병필가-39, 1921년, 윤씨(사돈)→미상(사  
 돈)〉, 보고 {십습나이다}〈송병필가-82, 1909년, 광산김씨(며느리)→전  
 주이씨(시아머니)〉, 가고 {십은}〈송병필가-86, 미상, 미상(형)→미상  
 (아우)〉, 먹고 {십분}〈송병필가-48, 20세기\_전반, 은진송씨(둘째\_딸)  
 →전주이씨(어머니)〉

‘-고져 시브-’와 관련된 근대국어의 통합 형식은 ‘-고 시브-’뿐만 아니라  
 ‘-과더 시브-’도 있다.<sup>41)</sup> 특히 〈선찰〉의 발신자인 ‘안동김씨’는 (14)의 ‘-고  
 시브-’만 아니라 ‘-고져 시브-’와 ‘-과더 시브-’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 세 형식은  
 모두 희망을 나타낸다. 세 개의 형태를 한 사람이 사용한 경우는 이뿐이다.<sup>42)</sup>

(15) ‘안동김씨’의 ‘-고 시브-’ 관련 형식

- 고져 시브-: 가져오고져 {시븐들}〈선찰-9-038, 1698년, 안동김씨(어머니)→송  
 상기(아들)〉
- 과더 시브-: 과글과다 {시브기}〈선찰-9-110, 1690~1701년, 안동김씨(할머니)  
 →은진송씨(손녀)〉
- 고 시브-: 보내고 {시브되}〈선찰-9-110, 1690~1701년, 안동김씨(할머니)→  
 은진송씨(손녀)〉 / 먹고 {시븐}〈선찰-9-066, 1700년, 안동김씨(어  
 머니)→송상기(아들)〉 / 히고도 {시브디}〈선찰-9-052, 1699~1700  
 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41) 이영경(2006: 11-12)의 지적처럼 ‘-과더 시브-’가 중세 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도 있다.

42) 〈순원봉서〉〈순원어필〉의 발신자인 ‘순원왕후’가 ‘-고져 시브-’와 ‘-고 시브-’의 두  
 형식을 혼용한다.

제월당 송규립(1630-1709)의 아내인 안동김씨(1632-1709)는 생몰년으로 보면 17세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비록 (15)가 17.8세기 교체에 작성된 것일지라도 안동김씨의 언어는 17세기 국어가 반영된 것이다. 즉 '싶-' 구문에 연결어미가 연결되어 '희망'을 의미하는 형식으로,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고져 시브-∞-고 시브-∞-과더 시브-'의 선택이 가능하였다.

역사적으로는 '-고져 시브-'가, '-져'가 떨어진 것이든, 또는 유추로 인해 '-고'로 바뀐 것이든, 근대국어에서는 '-고 시브-'로 변화된 것은 명확하지만, 이 시기에 '-과더 시브-'는 왜 등장하는 것일까? '-고져 시브-'가 '-고 시브-'로 점진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고져 시브-'는 빈도가 적어지고 '-고 시브-'가 늘어나자, '-고져'와 동일한 의미의 '-과더 시브-'로 '-고져 시브-'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간본 자료에서 '-과더 시브-'는 『논어올곡언해』(1749) 등 매우 제한된 용례를 보이는데,<sup>44)</sup> 인간 자료에서 소수만 나타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6) '-면 시브-' 통합 형식

먹이데면 {시부다}<추사가-16, 19세기, 미상(어머니)→호순\_부\_내외(딸과\_사위)>, 씨오면 {시부오나}<김성일가-092, 1847년, 진성이씨(며느리)→김진화(시아버지)>, 마더면 {시븐}<순원봉서-04, 1846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보면 {십습\_이다}<송병필가-42, 1903년, 은진송씨(첫째\_딸)→전주이씨(어머니)>

'-면 시브-'는 19세기의 여러 언간에서 발견된다. 이영경(2005: 11-12)에서는

43) '-과더'와 '-고져'는 상위문의 주체인 소망주와 하위문의 주체인 행동주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냐는 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상위문 주어의 '희망'을 나타내는 것은 같다. 근대국어에 오면 용법에서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경(2005: 11), 정혜선(2010: 182)를 참조할 수 있다.

44) 이영경(2005: 11)이나 정혜선(2010: 177)에 제시된 『논어올곡언해』(1749)의 용례를 제외하면 일기류인 필사 자료이거나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언간에서 사용된 것이다. 해당 용례는 '君子는 言의 訥하고 行의 敏과져 시부니라<논을 1:40a>'이다.

‘-과더(>과져)’의 소멸과 함께 ‘-과더 시브-’ 형식이 사라지고 ‘-면 시브-’ 통합 형식으로서의 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정혜선(2010: 178, 182-183)에서는 ‘-면 시브-’와 반사실적 상황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과더 시브-’나 ‘-고 시브-’와 거리를 두었다. 연결어미 ‘-면 시브-’는 (16)에서 보듯이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고 시브-’나 ‘-과더 시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정혜선(2010)이 적절한 듯하다. 왜냐하면, ‘-과더 시브-’가 단순히 시기적으로 앞서 나타나고,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여 대체된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기적 연관성이 적고, 또한 ‘-과더 시브-’는 근대국어 국어사 자료에서 소수로 나타나는 매우 한정된 형식이지만, ‘-면 시브-’는 19세기에 널리 사용되던 통합 형식이기 때문이다.

#### 4.2.2. 의문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

‘-는가 시브-’와 ‘-르가 시브-’는 16세기 인간뿐만 아니라 근대국어 인간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같은 ‘아’계 의문형 통합 형식인 ‘-랴 시브-’는 소수만 보일 뿐이며, ‘오’계 의문형 통합 형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계 의문형에서도 ‘-르고, -르코’만 간간히 보이며 ‘-뇨 시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리 시브-’는 특정 발신자에게만 간간히 나타난다.

##### (17) 근대국어 의문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

‘아’계	-랴 시브-	아니 보랴 {시브오되}<이동표가-20, 1677년, 이동표(아들)→순천김씨(어머니)>, 수굴면 죽허랴 {시브들}<선찰-9-110, 1690~1701년, 안동김씨(할머니)→은진송씨(손녀)>
‘오’계	-르고 시브-	어이홀고 {시브고}<선찰-9-037, 1699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어일고 {시버}<송준길가-38, 1724~1736년, 밀양박씨(어머니)→송익흠(아들)>, 엇더허올고 {시부오이다}<김성일가-108, 1848년, 의성김씨(둘째_딸)→김진화(아버지)>, 엇덜고 {시버}<순원어필-2-03,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흥근(재종동생)>



- 고 시브- 어더로 피혀여 모든고 {시브오이다}<선세언독-24, 1668~1736년, 송요경(아들)→안정나씨(어머니), 엇디 되려 이러흐온고 {시브와}<송준길가-35, 1734년, 밀양막씨(아내)→송요화(남편), 엇디 혀여 설워혔던고 {시브}<순원봉서-12,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 리 시브- 어이 견더리 {시프꺼니와}<선세언독-05, 1633년, 진성이씨(어머니)→진주정씨(딸), 어이 근심이 이시리 {시브}<선찰-9-044, 1697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약효나 이시면 죽허리 {시부대}<김성일가-071, 1847년, 여강이씨(어머니)→김홍락(아들)>

(17)에서 제시된 용례는 16세기의 통합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19세기 언간에 나타난 용례이다. <순원어필><순원봉서> 등의 왕실 관련 언간은 계층에 따른 진행 속도의 차이로 이해되나, <김성일가>와 같은 양반가 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논의와 달리 '오'계 의문형 종결어미와 '싶-'의 통합 구문은 19세기까지 가능했던 결합형인 것이다.

#### 4.2.3. 감탄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

감탄형 종결어미와 '싶-'이 통합한 '-에라 시브-' 구성이 17세기 전기의 <진주 하씨묘>에서 나타난 이래도 이후의 언간 자료에서도 그리 많은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숙명>, <선세언독>, <김성일가>에서 하나씩 발견된다.

##### (18) 감탄형 종결어미 통합 형식

빅엿도다 {시브}<숙명-44, 1663년,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사논도다 {시브}<선세언독-25, 1734~1741년, 은진송씨(누나)→송요화(남동생), 흐래다 {시부대}<김성일가-057, 1850년,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감탄형 종결어미와 '싶-'의 통합 형식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17~19세기에 면면히 이어지는 경향이 드러난다.

#### 4.2.4. 의존명사 통합 형식

〈순천김씨묘〉의 ‘내 주려 주글 썬덩 {시버}〈순천김씨묘-094〉’가 ‘의존명사+조사’에 ‘시브-’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을 4.1.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이러한 유형을 계승한 ‘의존명사’와 ‘시브-’가 통합한 다른 형식은 어느 시기, 어느 발신자에게서부터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대국어에서는 의존명사 ‘덧’과 ‘성’만이 ‘싶-’에 통합되어 ‘싶-’ 구문을 형성한다. 모두 ‘추측’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성’의 경우는 역사적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언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대국어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구성으로 보인다(이영경 2005: 18). 근대국어에서 의존명사 통합 형식으로 확인되는 것은 ‘덧 시브-’ 통합 형식뿐으로, 간본 자료만으로는 가장 이른 출현 시기는 18세기이다.<sup>45)</sup> 그런데 언간에서는 17세기 중기 자료인 〈숙명〉, 〈숙휘〉에서부터 용례가 확인된다. ‘도홀 {덧시브오이다}〈숙휘-30〉은 1662년에 작성된 편지이다. ‘덧(덧) 시브-’ 통합 형식이 사용된 17세기 편지로는 〈숙명〉, 〈숙휘〉를 비롯하여 〈창계〉, 〈선세언적〉, 〈선세언독〉, 〈선찰〉 등이며, 다양한 발신자에게서 확인된다.<sup>46)</sup> 발신자에 따른 용례를 하나씩 들면 다음과 같다.

##### (19) ‘덧(덧) 시브-’ 통합 형식

17세기:       즐거울 {덧시브더라}〈창계-18, 1649~1696년, 임영(삼촌)→미상(조카)〉,  
                   도홀 {덧시버}〈숙명-53, 1652~1674년,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  
                   (딸)〉, 낫즈울 {덧시브오이다}〈숙휘-30, 1662년, 명성왕후(올케)→숙휘공  
                   주(시누이)〉, 므른 {덧시브오이다}〈선세언적-07, 1680~1692년, 남양홍씨  
                   (아내)〉→박성한(남편), 더호는 {덧시브니}〈선세언독-19, 1668~1697년,

45) 이영경(2005: 18)이나 안주호(2005: 90)에 18세기의 간본 자료를 제시하면서 18세기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예) 텅형호 덧 시브오니〈천의소감언해 4:42b〉(1756), 나간 덧 시부다〈청어노걸대언해 5:5b〉(1765) 등.

46) 황문환 외(근간)에서는 표제어를 ‘덧시브다’, ‘덧시브다’ 등처럼 어휘화가 발생한 것으로 용례를 정리하였다. 용례로 제시될 때는 황문환 외(근간)를 따라 붙여 쓰지만, 본문에서는 통합 형식을 명백히 하기 위해 ‘덧(덧) 시브-’와 같이 띄어 쓴다. 이 글에서는 어휘화 여부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 송병하(남편)→안정나씨(아내), 더덜 {덧시브고}<선찰-9-048, 1700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 18세기: 정이 업슨 {덧시브다}<송준길가-24, 1708~1736년, 안정나씨(어머니)→송요화(아들), 더울 덧도 {덧시브고}<송준길가-33, 1727년, 밀양박씨(아내)→송요화(남편), 잇스올 {덧시브옵고}<송준길가-85, 1741년, 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고이훈 {덧시브고}<자손보전-08, 1750년, 달성서씨(외할머니)→맹지대(외손자), 못 견디올 {덧시브오이다}<추사가-17, 1791년, 기계유씨(아내)→김노경(남편)
- 19세기: 못 만논 {덧시브다}<김성일가-075, 1847년, 여강이씨(어머니)→봉준(아들), 내게 나올 {덧시브다}<김성일가-075, 1847년, 여강이씨(어머니)→봉준(아들), 그들 못할 {덧시브나} 섭섭호읍<송병필가-09, 1889년, 송병필(남편)→전주이씨(아내), 한이 탈일 {덧시브나}<송병필가-74, 1896년, 미상(시숙모)→전주이씨(조카며느리)

‘덧(덧) 시브-’ 통합 형식은 18,9세기에서는 많은 인간의 다양한 발신자에게서 확인된다. ‘덧(덧) 시브-’ 통합 형식은 (19)에 제시된 예처럼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추측의 의미를 지닌다. 의존명사 통합 형식은 15세기의 <순천김씨묘출토 언간>에서 ‘뿐덩’과 결합되는 가능성이 모색된 이래로, 17세기부터 추측의 ‘덧(덧)’과 ‘싫-’이 결합한 ‘덧(덧) 시브-’ 통합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싫-’ 통합 형식의 하나로 굳어진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싫-’ 구문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어휘와 통사적 변이와 변화에 관여하는 사회적 변인을 발신자 성격에서 찾아보았다. ‘싫-’의 어휘적 변이와 변화에서는 발신자의 성격에 따른 현상들이 몇몇 드러났으며, ‘싫-’ 구문의 통사적 변이와 변화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보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현대국어 ‘싫-’은 역사적으로 ‘식브->싯브-/싯브->시브->시프-’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왔고, 다음의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되었다.

첫째, ‘식브-→시브-’는 ‘ㄱ’의 탈락으로 형성된 것인가?, 둘째, 그 과정에 나타나는 ‘신브-/십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무엇인가?, 셋째, ‘시프-’, ‘십(싶)-’의 형성 과정은 어떤 것인가?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싶-’의 형태를 가문별, 그리고 발신자에 따라 분석한 결과, 16세기는 ‘식브-→시브-’보다는 ‘식브-∞시브-’ 혼용 단계였으며, 두 형태의 혼용은 가문과 발신자에 따라 17세기까지 이어진다. ‘식브-∞시브-’의 혼용 단계에서 ‘시브-’의 선호 단계로 일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지역 또는 가문에 따라 달리 진행되었다. ‘신브-/십브-’는 단지, ‘식브-∞시브-’의 혼용 단계에서 도출된 산물이며, ‘식브-’와 ‘시브-’라는 두 형태의 접촉으로 인한 우발적 표기로 보았다. ‘시프-’는 17세기 초기에, 어느 한 가문, 그리고 발신자 한 사람과 관련된 편지에서 3회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간본 자료에 나타난 ‘시프-’도 필(언해)자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시프-’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 특정 가문의 사람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된 것이었다. 결국 ‘식브-∞시브-∞시프-’의 혼용 단계는 17세기, 또는 최대 16세기부터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식브-→신브-/십브-→시브-→시프-’처럼 역사적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변화 과정으로는 ‘싶-’의 다양한 어형들의 발생과 혼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싶-’ 구문의 통사적 구조 즉 ‘싶-’ 구문의 통합 형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많이 의존한다. 특히 <순천김씨묘>에서 ‘신천강씨’가 작성한 편지에서 나타나는, 매우 다양한 형식의 ‘싶-’ 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순천김씨묘>의 ‘신천강씨’ 편지에서는 나타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통합 형식[-ㄴ 시브-]과 의존명사 통합 형식[썸뎡 시브-]이 중세국어에서 존재하였다는 증거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져 시브-∞-고 시브-∞-과더 시브-’의 혼용 단계가 근대국어에서 발생하였으며, ‘-고져 시브-’가 ‘-고 시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현대국어의 ‘똥싶-’ 구문이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는 17세기 중기부터 나타나

기 시작하는데, 의존명사 통합 형식의 최초 출현이 아니라 <순천김씨묘>에서 '쏟덩'처럼 의존명사 통합 형식의 선행적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싫-' 구문의 형태적, 통사적 변화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밝혔으나 발신자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여 발신자의 출신 가문과 세대라는 사회적 변인만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어휘들로 연구의 폭을 넓힌다면 발신자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고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싫다' 구문, 조선시대 한글 편지, 사적 변화, 언어 접촉, 통합 형식, 의문형 종결어미

### <참고문헌>

- 강희숙(2010), 「나주임씨 언간의 구개음화 교정 현상 연구」, 『한글』 289, 한글학회, 1-28면.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양진(2006), 「타동사 \*식다를 찾아서」,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7-156면.
- 김일근(1986/1991), 『增訂(三訂)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주필(2005), 「18세기 譯書類 문헌과 王室 문헌의 音韻變化 : ㄷ口蓋音화와 圓脣母音화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3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9-57면.
- 김주필(2006),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정신문화연구』 29-1(통권 10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27-157면.
- 김주필(2008), 「司譯院 倭學書에 나타난 音韻變化의 過程과 特性」, 『語文研究』 3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9-57면.
- 김주필(2011가),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 『한국학논총』 3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23-257면.
- 김주필(2011나), 「송준길 가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 발신자의 '세대', '성',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61, 국어학회, 61-92면.
-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95-137면.
- 김한별(2015가), 「언간 자료를 통한 음운사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의성김씨 학봉 증가 언간』을 대상으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195-238면.
- 김한별(2015나),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 <의성김씨 학봉 증가 언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 김홍수(1983), 「'싫다'의 통사 의미 특성」, 『관악어문연구』 8, 관악어문학회, 157-190면.
- 문화체육관광부(2009),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DVD, 국립국어원.

- 배영환(2011), 조선시대 인간의 어휘 성격과 특수 어휘에 대한 고찰 -용언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1, 57-92면.
- 배영환(2012), 「현존 最古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 연구』 15, 211-239면.
- 배영환 · 신성철 · 이래호(2013),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藏書閣』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22-254면.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손세모돌(1995), 「“-고 싶다”의 의미 정립 과정」, 『국어학』 26, 국어학회, 147-169면.
- 신성철(2014), 「발신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른 19세기 한글 편지의 표기와 음운」, 『어문논집』 75, 중앙어문학회, 107-135면.
- 안주호(2005), 「‘싶다’ 구문의 통시적 고찰」, 『어문학』 90, 한국어문학회, 73-96면.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 개설」, 서울: 민중서관.
-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65-126면.
- 이영경(2005), 「‘싶다’ 구문의 史的 변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5면.
- 전광현(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19.
- 정언학(199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와 역사적 변화」,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121-165면.
- 정윤자(2014), 「‘싶다’와 ‘-고프다’의 재구조화 연구」, 『어문연구』 81, 어문연구학회, 27-45면.
- 정혜선(2010), 「‘싶다’ 구문의 역사적 변화」, 『어문연구』 146, 국어문교육연구회, 169-191면.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최전승(1987), 「언어변화와 과도교정(hypercorrection)의 기능: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학 신연구』 II, 탑출판사, 340-359면.
- 최전승(2009), 「19세기 후기 국어방언에서 진행 중인 음성변화와 과도교정」, 『국어문학』 46, 국어문학회, 323-385면.

- 최전승(2012), 「19세기 전기 경북 사회방언 발달 과정에서 개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일고찰-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한글간찰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 연구』 6, 전북대 교과 교육 연구소, 277-375면.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한국역대문법대계』(1979)에 재수록)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 I)』, 태학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 연구( I)』, 태학사.
- 홍윤표(1997), 「한글 자료의 성격과 해제」, 『국어사 연구』, 태학사.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73-131면.
- 황문환(2013),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종합화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 59, 한국어학회, 39-74면.
- 황문환(2015),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諺簡』, 역락.
- 황문환·김주필·배영환·신성철·이래호·조정아·조항범(근간),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 집』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Abstract]

##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 of 'sip-' Sentence Structure appeared in Hangeul letters in the Joseon Period

Shin seong cheol

This paper examined the social character of the senders involved in the historical changes of 'sip-', exploring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nges of 'sip-' sentence structure appeared in Hangeul letters in the Joseon period.

The 'sikbeu-' in the literature data of the 15th century corresponds to 'sip-' in the modern Korean. The possibility of 'sikbeu-' in the 15th century was ra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ders of Hangeul letter contained 'sikbeu-' in the Joseon period. In other words, 'sikbeu-∞sibeu-' tended to be used together in Medieval Korean Language, which continued until the 17th century. Though 'sipeu-' appeared in the some Hangeul letters of the 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ders showed that it was used even in the 16th century. The 'sikbeu-∞sibeu-' were used together in the 15th century and the 'sikbeu-∞sibeu-∞sipeu-' were used together in the 16th century. And the mixed usage can not be described in the sequential and historical changes, as in 'sikbeu- > sibeu- > sipeu-' but described as a product of language contact among the social groups preferring each different form. Regarding the syntactic changes of 'sip-' sentence structure, the following three types among the integration forms of the controversial 'sip-' sentence structure were examined.

Firstly, the occurrence process of '-gojyeco sibeu-' and '-go sibeu-'. Secondly, the period and occurrence process of '-myeon sibeu-'. Thirdly, the period and

occurrence process of ‘-r(n) deus sibeu-’. The ‘-gojyeo sibeu-’ was changed into ‘-go sibeu-’, which traced back to the 17th century. And ‘-myeon sibeu-’ was not related to ‘-gwadyeo sibeu-’, which was widely used in the 19th century. The integration form of ‘-r(n) deut sibeu-’ emerged in the 17th century and ‘r(n)’ of the interrogative concluding ending is understood to emerge in order to supplement ‘-r(n)ga, -r(n)go’

**【Key words】** : ‘Sipta’ Sentence Structure, Hangeul letter in the Joseon period, Historical change, Language contact, Integration form, Interrogative concluding ending

---

---

## 신성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전자우편: korstudy@lycos.co.kr

---

---

이 논문은 2016년 5월 1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6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